

## 가상의 인물에 대한 상업적 활용 가능성 탐구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기술로,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모방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기술은 놀라운 기술적 진보를 가져왔지만,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인해 인터넷은 정보 전달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로운 콘텐츠와 인물은 계속해서 탄생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하게 된다.

그런데, 딥페이크를 이용해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윤리적, 법적 쟁점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딥페이크로 생성된 인물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현실과 거의 차이가 없이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상의 인물이 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윤리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글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해 생성된 가상의 인물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가능성에 대한 탐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가상의 인물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또한 이에 따른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을 제시할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래에 가상의 인물이 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예측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가상의 인물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분야와 그 가능성을 탐구한 결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상의 모델이 광고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상품 홍보나 캐릭터 제작에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또한 모 보험 회사의 경우 가상 인물인 '로지'를 활용하여 이미 상업화를 한 사례가 있고, 또다른 의류회사에서도 가상의 인물을 광고에 사용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되곤 한다.

소비자들은 가상의 모델을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새로운 창조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기존 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가상의 인물이 광고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사용될 때, 소비자들은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즐기며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의 캐릭터나 모델이 상업적으로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하며, 이는 현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창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윤리적인 측면과 법적 규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딥페이크를 통한 가상의 인물 상업적 활용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소비자 보호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고민은 중요하지만,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와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고려와 법적 규제를 적절히 고려하면서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상의 인물의 상업적 활용은 가능하다. 이는 현대 사회가 디지털 기술에 대처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현상에 유연하게 대응할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며, 윤리와 혁신이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주장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은 가상의 인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상의 모델이 현실과 차이가 거의 없이 표현되면, 소비자는 어떤 콘텐츠가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난 일 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속을 수 있고, 기업들은 소비자의 혼란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주장에 대한 두 번째 반론은 딥페이크를 통해 가상의 인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실제 존재하는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딥페이크로 생성된 인물이 현실과 구분하기 어렵다면, 이는 실제 인물의 이미지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 사생활 보호와 인권 측면에서 이는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첫 번째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다. 우선 소비자가 현실과 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딥페이크 콘텐츠를 즐기는 동시에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과의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기업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가상의 캐릭터를 사용할 때 투명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는 가상의 인물을 통한 상업적 활용이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두 번째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다. 기존의 법적 구조와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가상의 인물의 상업적 활용을 규제할 수 있다. 법적인 측면에서는 딥페이크를 통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명확한 제재를 마련하고, 기존의 명예훼손 및 초상권 보호법을 통해 실제 인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업계에서는 가상의 인물을 활용할 때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사생활 보호를 최대한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상의 인물 상업적 활용이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가상의 인물을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로, 가상의 모델이 광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소비자는 가상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다. 둘째로, 윤리적 고려와 법적 규제를 통해 가상인물의 상업적 활용이 혼란과 사생활 침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으로는 새로운 디지털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반론에서 제기된 혼란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와 법의 측면에서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상의 인물 상업적 활용은 가능성과 동시에 책임과 규제가 수반되어야 할 새로운 영역이다. 이를 통해 미래에는 혁신과 보호가 공존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안과 해법으로 먼저 혼란과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대안이다. 가상의 인물이 사용된 광고나 콘텐츠에는 명확한 표시와 고지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은 딥페이크로 생성된 콘텐츠를 명시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다음 방법으로는 교육 및 캠페인이 있다. 소비자들에게 딥페이크의 존재와 활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면서도 더욱 주의깊게 정보를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한 방안 또한 마련되어 있는데, 딥페이크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여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새로운 디지털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하여 딥페이크의 악용을 억제해야만 한다. 또한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기업과 업계에서는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준수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 문화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대안이다. 딥페이크를 감지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은 딥페이크 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하여 딥페이크로 생성된 콘텐츠의 출처를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딥페이크의 악용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 딥페이크 기술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가상의 인물을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분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의 품질이 향상되면서 새로운 창조적인 영역이 개척되고, 기업들은 이를 통해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은 책임과 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게 될 것이다. 법적 체계와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하며, 기술적인 대안들이 발전해야만 한다. 소비자와 기업은 더욱 주의깊게 기술을 다루고, 새로운 콘텐츠를 소비할 때에도 더욱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딥페이크의 감지 및 대응 기술에 대한 연구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딥페이크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망된다. 요컨대, 가상의 인물 상업적 활용은 미래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 중 하나일 것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발전이 필요한 시대적인 과제로 꼽힌다.

#### <참고문헌>

Mariëtte van Huijstee, Pieter van Boheemen, Djurre Das, Linda Nierling, Jutta Jahnelt, Murat Karaboga, Martin Fatun, Linda Kool, Joost Gerritsen.(2021). 딥페이크 해외 입법 현황 - 유럽 정책에서의 딥페이크 대처. 시청자미디어재단.

박준, 조영호. “딥페이크 영상 탐지 관련 기술 동향 연구”(2019),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개최지, pp.724-726.

황정, 최은정, 한정혜. 딥페이크 앱 활용 윤리교육 융합 프로젝트의 개발 및 적용(2021),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5(2), pp.405-412.

유세진, “딥페이크와 탈진실의 시대 2023 미리엄웹스터의 올해의 단어, 진실성”, 뉴시스, 2023.11.27.[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7\\_0002537053&cID=10101&pID=101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127_0002537053&cID=10101&pID=10100)